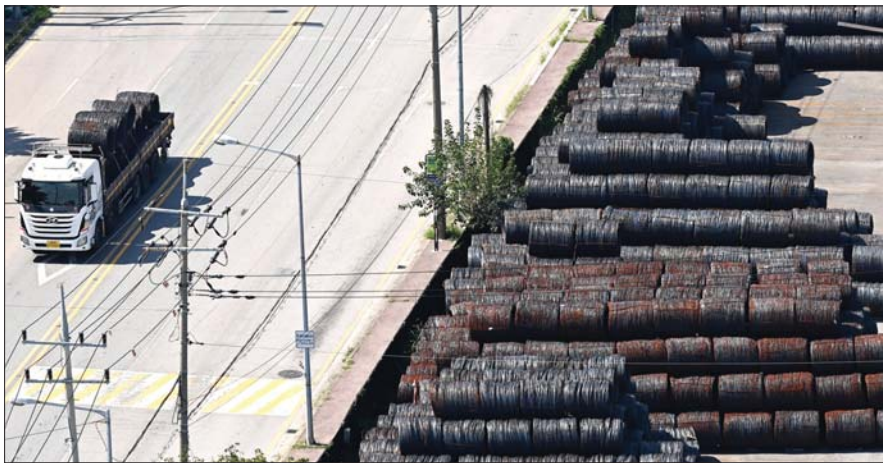


철강업계, ‘고율관세·수요부진’ 악전고투… “정부 지원 절실”

해외 공장 확보 등 대응책 마련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 봉착
“정부 차원 종합전략 마련 시급”

한·미 정상회담에도 대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유지되자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현지화, 해외 투자, 자산 매각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한 데다 중국의 생산량 조정이나 국내 건설경기 회복 같은 수요 요인이 받쳐주지 않는 한 업황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편 불필요한 자산



지난달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뉴시스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합작 투자하며 북미 시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고성장 지역인 인도에서는 현지 1위 JSW그룹과 손잡고 연산 6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호주에서는 블루스코프·일

본제철·JSW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와일라 제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와일라 제철소는 연간 120만 톤의 봉형강 생산능력과 자철광 광산을 보유해 원재료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내년까지 저수익 사업 55개와 비핵심 자산 71개 등 총

126개를 매각해 약 2조1000억원을 확보, 철강·이차전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키로 하고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주설비 입찰을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곧 선정할 방침이다. 자동차용 강판 고객 다변화에도 나서 지난해 생산량의 20%를 그룹 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했으며, 올해 한국GM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사업구조재편 차원에서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진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세아제강 역시 북미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세아스틸USA의 상반기 가동률은 60%로, 지난해(53%)와 2023년(52%) 대비 꾸준히 상승했다.

이처럼 국내 철강사들은 해외 거점

확충과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업황 회복은 수요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전환 과제가 더해지면서 단기적 위기 대응과 산업의 중장기적 구조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대응, 장기적으로는 대외 환경 악화에 대비해 자산 매각과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수요 회복 없이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입 물량이 여전히 많아 국내 시장 방어가 필요하고,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K-배터리, 차세대 ESS 신제품 공개… 북미 공략 속도

RE+ 2025

LG엔솔 원스톱 ESS 솔루션 제안
삼성SDI ‘SBB 1.7·SBB 2.0’ 공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제품을 공개하며 북미 공략에 속도를 낸다.

3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Renewable Energy Plus) 2025’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해 현지 맞춤형 ESS 솔루션과 혁신 기술을 집중 선보일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스톱 에너지 저장장치(ESS) 솔루션’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꾸리고, ‘전력망 ESS’, ‘북미 사업역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



LG에너지솔루션 ‘RE+ 2025’ 전시 부스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

C)·무정전전원장치(UPS)’, ‘주택용 ESS’ 등을 중점 소개한다.

특히 전력망 ESS 공간에서는 ‘JF2 AC·DC LINK 시스템’ 실물을 전시한다. 고효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최대 5.1MWh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출력 타입(AC·DC) 선택이 가능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북미에서 생산되는 각형 폼팩터(form factor) 기반 LFP 배터리 셀을 처음 공개하고, 500Wh 이상 초고에너지 파워치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JF2·JF3 셀·팩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파워치형과 각형 두 가지 폼팩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올 아메리칸, 프루본



삼성SDI ‘RE+ 2025’ 전시장 조감도.

/삼성SDI

& 레디(All-American, Proven & Ready)’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미국 맞춤형 ESS 솔루션을 집중 선보인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세 정책 등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의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핵심 공개 제품은 차세대 전력용 ES

S 솔루션 삼성배터리박스(SBB) 신제품 ‘SBB 1.7’과 ‘SBB 2.0’이다. SBB는 20피트(ft) 컨테이너 박스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일체형으로 탑재해 전력망에 바로 연결 가능한 제품이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SBB 1.7은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약 17% 개선했고, SBB 2.0은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명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제품에는 모두 함침식 소화 기술인 모듈 내장형 직분사(EDI)가 적용돼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외에도 삼성SDI는 지난 5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더 스마트 E 유럽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무정전 전원장치(UPS) 신제품, 열전과 차단 안정성 기술 등 ESS 관련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 맞춤형 ESS용 배터리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며 “고성능과 고효율을 겸비한 ESS용 배터리로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화비전, 첨단 AI 영상 솔루션 뽐내

호주 ‘보안전시회&컨퍼런스’ 참가
AI 시스템온칩 ‘와이즈넷9’ 공개

한화비전이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셋 기반 영상 감시 솔루션을 앞세워 오세아니아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비전은 지난달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한 ‘보안 전시회 & 컨퍼런스(Security Exhibition & Conference)’에 참가해 다양한 인공지능(AI) 영상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보안 전시회&컨퍼런스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 보안 행사로 한화비전은 주력 신기술인 AI 시스템온칩(SoC) ‘와이즈넷9’을 공개했다.

와이즈넷9은 두 개의 신경망처리장치

(NPU)가 화질 개선과 영상 분석을 각각 담당해 이전 세대 ‘와이즈넷7’ 대비 3배 이상 향상된 추론 성능을 구현한다. 이를 탑재한 카메라는 명암 대비가 극명하거나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한화비전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부스 내에 암실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AI 기반 저조도·역광 보정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비전은 AI로 분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도 선보였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플랫폼 ‘사이트마인드(SightMind)’는 고객 이동 패턴을 분석해 통제로 시각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큰 주목을 받았다.

/원관희 기자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신임 대표 부임

르노그룹 전동화 등 핵심업무 수행

르노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 니콜라 파리 사장(사진)이 부임한다.

31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니콜라 파리 신임 사장은 전기공학으로 전문기술 학사를 취득한 뒤 프랑스 랭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ZF Lenksysteme)를 거쳐 2015년 르노 그룹에 합류했다.

파리 신임 사장은 르노 그룹의 해외 시장 신차 개발, 새시 및 플랫폼, 전동화, 첨단 기술 등 구매 관련 핵심 업무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랩에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구매 담당장을 역임하며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분야 첨



단 기술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파리 사장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배터리, E-파워트레인, ADAS,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구매 담당 부사장을 맡아 르노 그룹의 기술 혁신 및 전기차 전환에 기여해 왔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풍부한 파트너십 경력, 인도와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 신임 사장이 회사의 미래 친환경 신차 개발 로드맵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에너지빌리티 APEC 참가국 주요인사 연이어 창원 본사 방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너지 정책 당국자들이 자사 원자력 제작역량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부 토미 조이스 차관보를 비롯한 일행이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를 방문했다.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일행과 네덜란드 기후 녹색성장부 차관 일행, 28일은 프랑스·잠비아·오스트리아 정부관계자 일행이 방문했다. 29일에는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일행이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역량을 살펴봤다.

/유혜은 기자 dhahshab@